

전관예우 금지·양형기준 마련 하니... 국선변호사 선임 확~ 늘었다

광주지법, 2005년 22% → 올 28%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국선 변호인의 사건 수 임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반면 개인 변호사의 선임 비율은 매년 줄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 사건 중 국선 변호 비율이 ▲2005년 22.3% ▲2006년 1월~8월 20일 25.9% ▲2006년 8월21일~2007년 6월30일 28%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개인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형사 사건 비율은 22.4%, 22.3%, 19.1%로 감소했다. 한때 "선처 바랍니다"는 말로 상징되던 '부실변호'로 지탄받던 국선 변호인제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선 변호인의 선임 비율이 늘고 있는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광주지법이 양형기준을 마련, 양형에 대한 객관성을 높인 것이 큰 몫을 하고 있다.

또 '전관예우'에 대한 관행이 점차 사라지면서 피의자들이 굳이 많은 돈을 들여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지방법원이 지난해부터 국선 전담변호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단까지 새롭게 꾸리면서 국선 변호인을 선호하는 피의자들이 늘고 있다.

현재 광주지방법원의 국선 변호인은 51명이며, 기소 전 국선 변호인은 49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연간 약

40~60건의 변론을 수행하며, 건당 20여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광주지법 최인규 판사는 "IMF 이후 개인 변호사 선임 비율이 크게 떨어진 뒤 지속된 경기 침체 탓에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 국선 전담 변호사제 도입으로 국선변호의 질이 좋아졌고 양형기준이 마련되면서 변호인이 국선이나, 사선이나에 따라 선고량에 차이가 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광주지법 국선 변호인을 맡고 있는

구분(연도)	전체 피고인	개인 변호사	국선 변호사
2005	10,355	2,318 (22.4%)	2,305 (22.3%)
06.1~8.20	5,469	1,217 (22.3%)	1,414 (25.9%)
06.8.21~07.6.30	10,154	1,935 (19.1%)	2,841 (28%)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06년 8월 21일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도 국선 변호대상에 포함됨
2006년 8월 21일 전과 후를 따로 분류 했음
(자료: 광주지방법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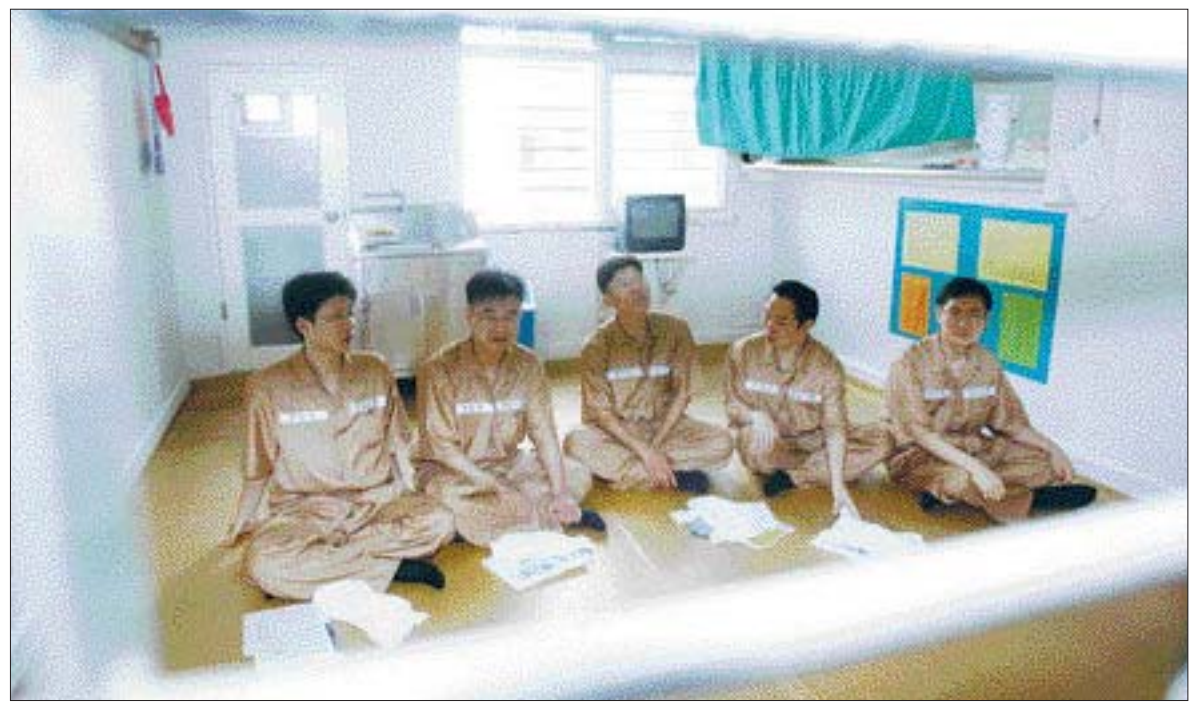
▲전관예우(前官禮遇)=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말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에서 유리하게 판결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례.

▲양형기준(量刑基準)=형사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종류나 죄질 등에 따라 형량을 규정하는 것.

임선숙 변호사는 "국선 전담변호인 제도가 활성화되고, 불구속 재판이 늘면서 피고인들이 국선·사선 변호

인에 대해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현직 검사들의 '1일 수용생활 현장 체험' 광주지법감찰청(감사장 신상규) 형사3부 최민호 검사 등 5명의 현직 검사들이 3일 광주교도소 기결사동 내 5호실(15.2㎡)과 독거사동(3.9㎡) 등에서 수용자의 실상을 직접 체험하는 '1일 수용생활 현장 체험'을 하고 있다. 광주교도소는 현직 검사들을 포함해 올해 17명이 수용생활 현장 체험을 했다. /위작량기자 jrwi@kwangju.co.kr

400명 조업 참여 거부 유도 기아차 노조 간부 8명 집유

광주지법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장정희 판사는 3일 자동차 생산 조업 참여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송모(38)씨 등 기아차 노조 간부 8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신차 생산라인 투입 인원 재조정을 놓고 회사 측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근로자 400여 명이 집단적으로 조업 참여를 거부하도록 해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

했다.
장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 측과 합의해 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송씨 등은 지난 2006년 9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신차 UN의 조립라인 가동률이 95%에 이르지 못하자 회사 측과의 투입인원 재조정을 요구하며, 협상을 벌이다 3일간 조업 참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병역비리' 사이 8월 현역 입대

20개월 복무할 듯

병역특례업체에서 부실근무한 사실이 드러난 가수 사이(30·사진·본명 박재상)가 현역으로 복무하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3일 "검찰에서 편입취소 통보를 해 온 가수 사이에게 지난달 26일 '현역처분' 고지를 했다"면서 "곧 현역으로 입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는 이르면 8월 중 육군훈련소에 입영해 5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대에 배치되며, 총 24개월에서 4개월이 준 20개월 가량 복무한 뒤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았던 사이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2003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다. /연합뉴스

反FTA 시위 오종렬·정광훈씨 구속

서울 중로경찰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해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대표 오종렬·정광훈씨를 전격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광화문과 서울 광장, 대학로 등 도심에서 7~8차례 금지통고된 불법 집회를 강행하고 광화문 일대 차로를 점거해 시내 교통을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범국본 간부가 한미 FTA 저지 집

회를 강행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 반(反)FTA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일부 참가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 30대 투신

지난 2일 오후 1시에 순천시 D아파트 뒤뜰에서 술집 여주인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제소된 예정인 임모(3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현장 인부로 일하던 임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순천 A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후 1시30분 재조사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임씨가 처벌될 것을 우려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

나원침 (7252) 김장두



다들 물어봐... KCC

DS건설(주) KCC-원도, 연수, 도림, 대림

KCC원도, 시스텔원도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원도, 연수, 도림, 대림

실리콘·방수제·점착제·타이프

아파트단지 소방호스 관창 '씩쓸이'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또다시 소방호스 구리 관창(管槍·nozzle) 81개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

○...3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최근 문흥동 [아파트] 5개 동 복도에 설치된 관창 81개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

○...이들 관창은 개당 15~20cm(무게 2.5kg, 지름 65mm) 크기로 방수 기구함에 비치돼 있었는데, 일반 강철 제품보다 10배 이상 비싼 kg당 2천 500원에 팔리고 있어 고철 절도범들의 표적이 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

○...앞서 광주·전남에서는 올 들어 25개 아파트에서 1천964개(3천928만원 상당)의 관창이 도난당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한바탕 소란.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감사를 피하기 위해 뇌물로 받은 돈을 업자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꾸며 돌려준 뒤 다시 챙긴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감사 피하려 돌려보낸 뇌물 감사 끝나자 모두 돌려받아

여수시청 공무원 영장·건설업자 입건

(?)를 한 것이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4년 4월부터 12개월 동안 2천400여만원을 받아 할부금을 냈다.

는 소시에 지난 2006년 10월 업체 대표에게 그동안 받은 돈을 되돌려줬다. 하지만 올 1월 감사가 끝나자 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번 돌려준 뇌물을 내가 빌려준 것으

로 하고 다시 보내라"고 요구했다. 업체 대표가 돈을 보내지 않자 김씨는 여러 차례 독촉 전화를 해 1월 말께 돈을 모두 받아냈다. 김씨는 또 같은 과 공무원 2명과 함께 출장 시간을 허위로 늘려 출장비 2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경찰은 3일 김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체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만든 청취기입니다.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com

1588-8499 080-222-0100